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2016. 4. 19~20

‘경북 산림’의 역할 제고 방안

- 실리와 명분 -

산림비즈니스연구회

권태호 (대구대학교)

들어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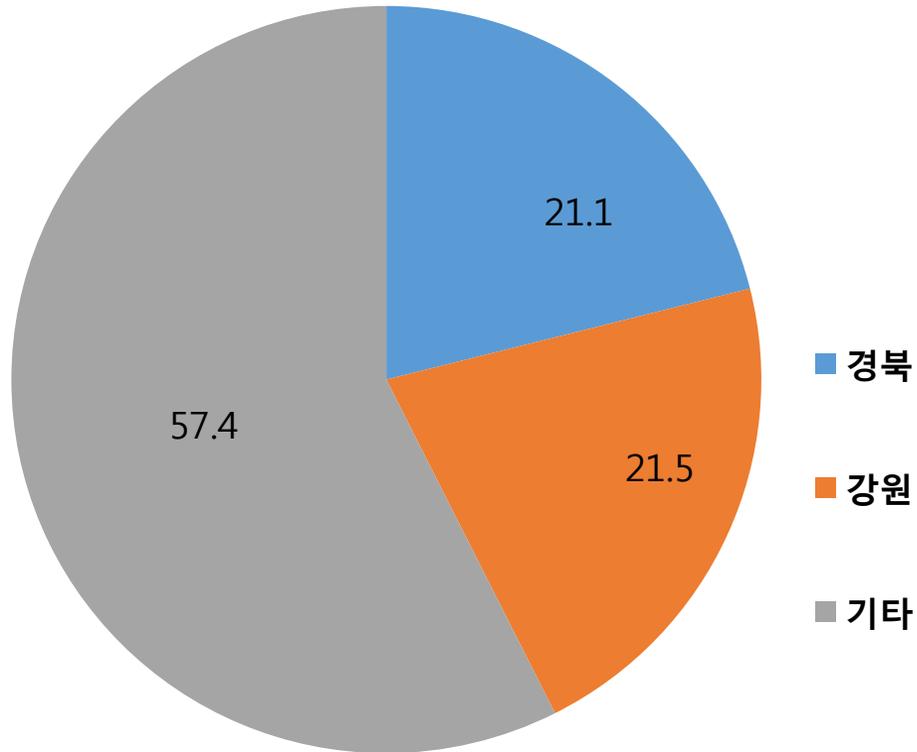
‘경북 산림’의 주요 특징

● 산림 사업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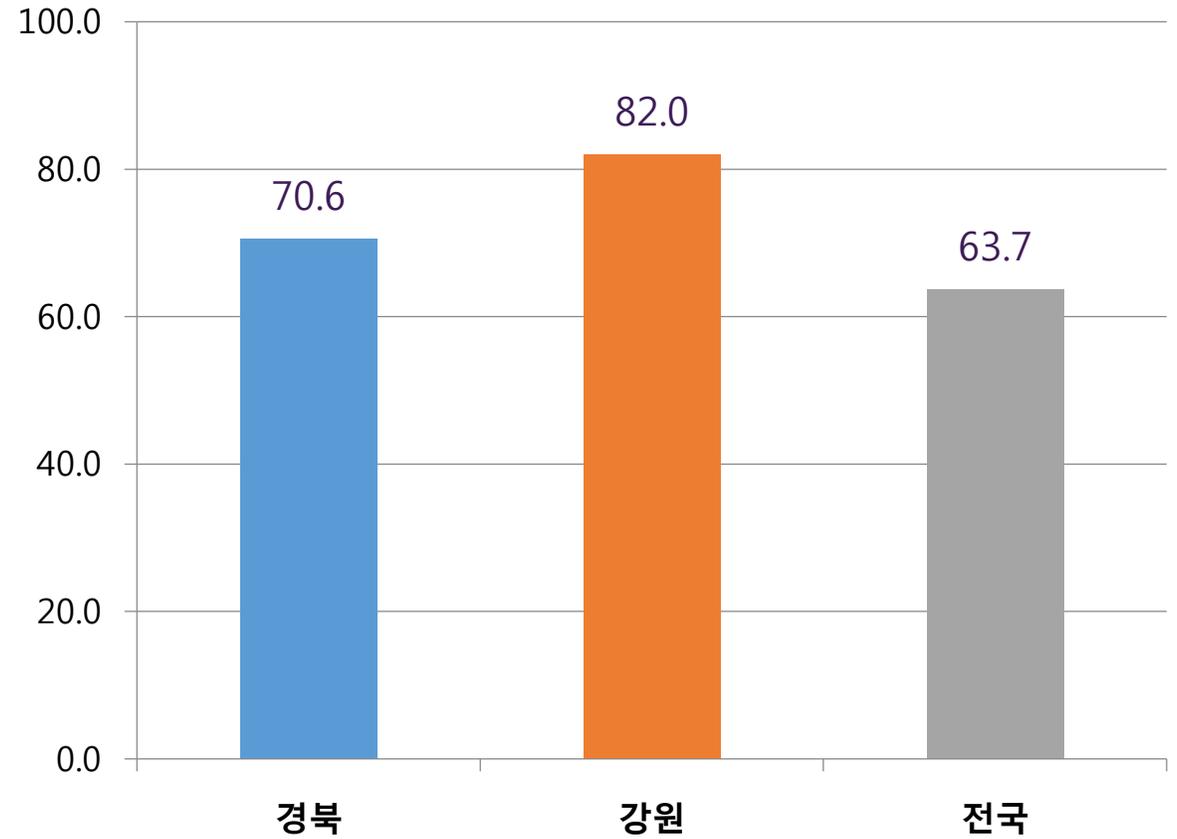
- 산림면적이 넓고, 산림율도 높아 양적/질적으로 우수 산림자원 보유
- 사유림의 비중이 높아 산림 소득 창출이 중요한 정책 과제
- 산림소유자, 산림에 종사하는 임가 수 및 임가 인구 등 비율이 높음
- 전국 임산물 생산에서 높은 비중 차지, 전국 생산량 1위 품목(송이, 대추, 오미자 등)이 많아 산업화를 위한 경쟁력 기반 보유

‘경북 산림’의 특징

산림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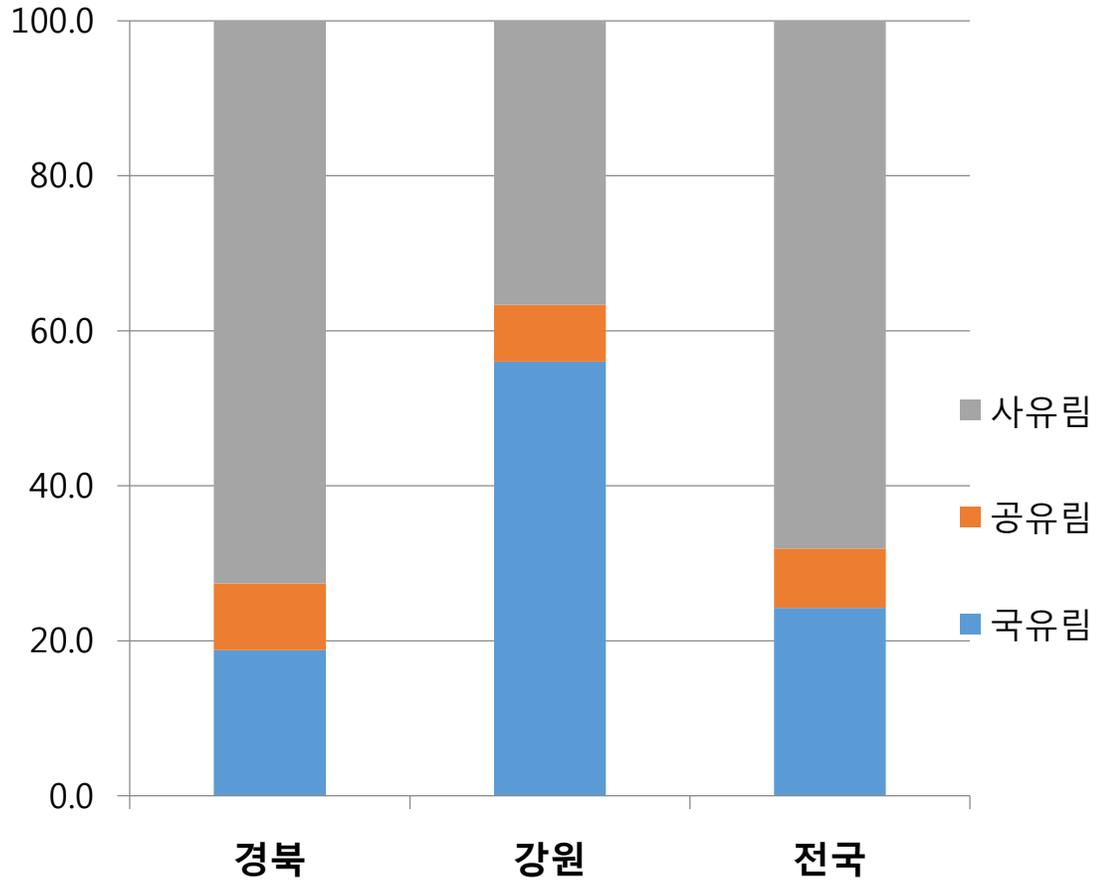


산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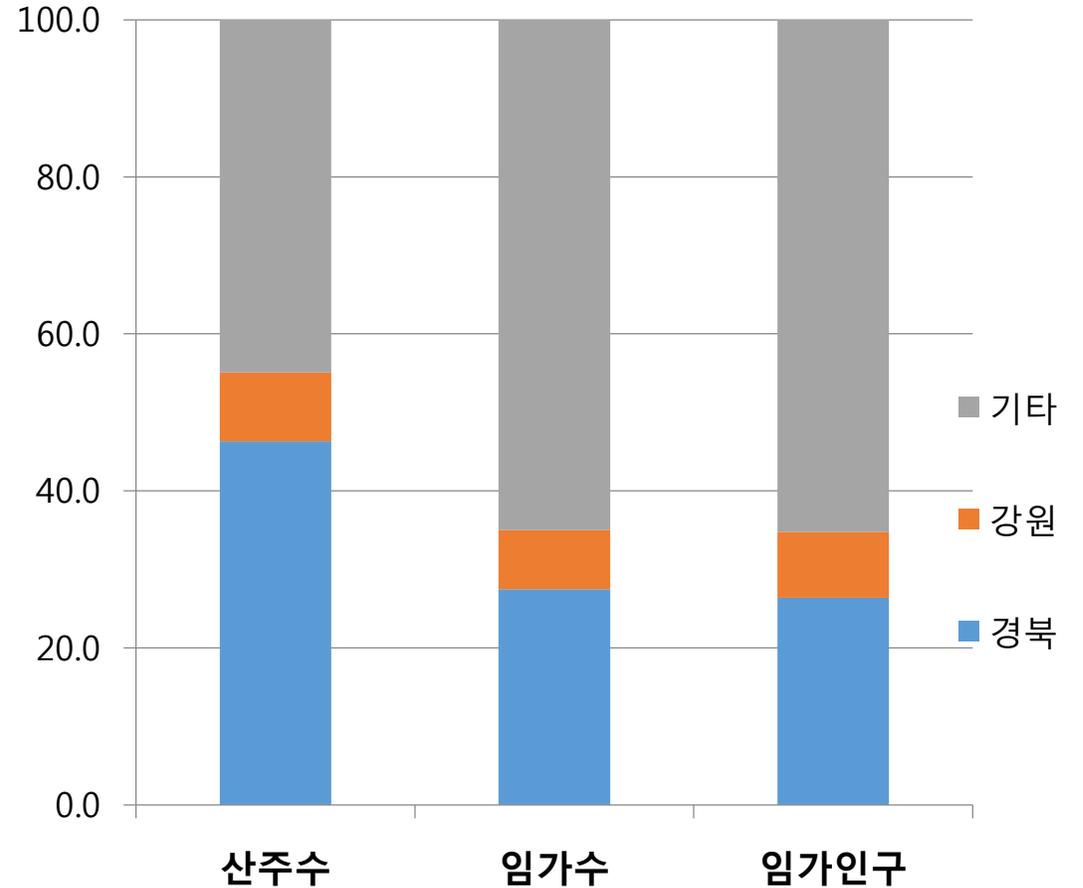


‘경북 산림’의 특징

소유별 면적비(%)



산림종사자 비율(%)



‘경북 산림’의 주요 특징

● 기술 및 경험적 측면

- 대학 및 연구 기관이 많고, 특히 산림 관련 학과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관련 인력이 풍부, 연구 성과 및 기술 교류/공유 기회가 풍부
- ‘산림 녹화’ 및 ‘한국 사방’의 주역이자 메카로서, 영일사방사업, 낙동강유역 산림녹화사업 등의 성공 경험과 높은 수준의 기술 보유
- 사방기념공원 및 사방기술원 등 상징성 인프라 확보

-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소득 증대 방안

- ☞ 산림복합경영을 활용한 웰니스 산업화 방안

- '통일 한국'에 대비한 한반도 산림녹화 기여 방안

- ☞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응 전략

[주제 1 : 실리]

산림복합경영을 활용한

웰니스 산업화 방안



- 산림을 청정 임산물 생산과 휴양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활용 -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활용하여 산나물, 특용임산물 등 청정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이러한 생산단지를 도시민들의 휴양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산림의 효용성을 높이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은 국립 산림과학원과 공동으로 산림청 관계관, 강원대학교 산채전문 교수, 산채류 가공전문가, 화천군청 및 마을주민과 함께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산림개발연구원과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산림복합경영시범지 현장에서 민·관·연 6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산림복합경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

밤나무 밭에 닭 풀어 연 5000만원 수익...'산림+비즈니스' 모델로 지역농가 소득 증대

산림과학원, 494억 투자...임산물 사업화 확대 나서
장흥선 '헛개 진액' 50억 매출

밤나무만 재배해 수익이 적었던 충북 충주의 A농가(사진)는 지난해 밤나무재배지에 닭을 시범적으로 풀어놓았다. 밤나무재배지 1.8ha에 우리맛닭2호 병아리 4주령(마리당 가격 5000원) 1000마리를 16주령이 될 때까지 키워 팔았다. 이 농가는 온라인 판매 450마리 직거래 300마리로 총 165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림+비즈니스' 사업이 농가 소득을 높이는 효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 산림산업화(6차산업)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49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산촌지역 임산물을 가공·포장해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에 서비스산업을 결합하는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임산물 사업화로 소득 증대

■ 배경 및 필요성

- **경북 산림의 특징***

- 산림면적, 산림율, 사유림, 임가인구 등의 여건

- **산림의 소득 창출 구조가 불안정**

- 산림의 장기투자(목재생산 등)에서 오는 경제적 취약성 극복
- FTA 확대, 잦은 기상이변, 풍/홍작에 따른 소득 불안정 해소

-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지 활용 모색**

- 청정 임산물 수요 급증
- 여가공간으로서의 숲에 대한 사회적 요구 다양화
- 산촌 주민의 소득화 및 지역 균형발전 요구

▶ 단기간 내 안정적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산림복합경영 모델** 모색

● **웰니스(웰빙, 행복, 건강) 산업 부각으로 산림비즈니스 영역 확대**

- 청정 임산물 수요 증대 : 건강기호식품, 의약품 원료 각광
- 산림복합경영단지와 산림경관을 조화시켜 산림비즈니스 공간화

▶ **친환경 먹거리+체험/볼거리+힐링 등을 결합한 6차 산업 모델 개발**

- 산림생태마을, 탄소순환마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소득단지 조성 및 경영 모델 제공

▶ **귀농, 귀촌 수요 충족**

산림복합경영 : 개념 및 의의

- 혼농임업(Agroforestry), 산지축산(Silvopasture 영, Dehasa 스페인)
- (일반적으로) 농, 축, 임업을 결합한 수익성 높은 1차 산업에 국한
- 청정 임산물 생산과 더불어, 1차 산업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가공하는 2차 산업, 산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복합적으로 연계한 휴양 중심의 3차 서비스 산업과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 극대화
- 산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반을 제공

산림복합경영 : 유형

● 목재생산 + 임간재배

- 지향 : 목재 생산의 장기성 및 저수익성 보완
- 대상 : 4영급(30년생) 이상의 인공 조림지 혹은 천연림
- 품목 : 산채, 약초, 특용수, 표고버섯 등



산림복합경영 : 유형

- 유실수/특용수 + 산지축산

- 지향 : 안정적인 소득 확보(품목 다각화), 친환경 순환농법 실현
- 대상 : 유실수, 특용수 재배지
- 축종 : 닭, 염소 등



산림복합경영 : 유형

● (순환방사형) 산지양계

❖ 기본개념

- 이동식 계사를 활용, 토양과 식물의 처리 능력 내의 사육밀도로 순환방사, 계분은 자연 분해되어 퇴비로 활용
→ 경제적, 생태적 이익을 최적화
- 동물 복지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적인 순환방사시스템
- 계분의 균일한 분산과 토양 보호를 위해 전 방사장을 여러 개의 소방사장으로 구획하여 1~2주 간격으로 순환하면서 닭을 방사



산마늘 체험



밤 재배지 산채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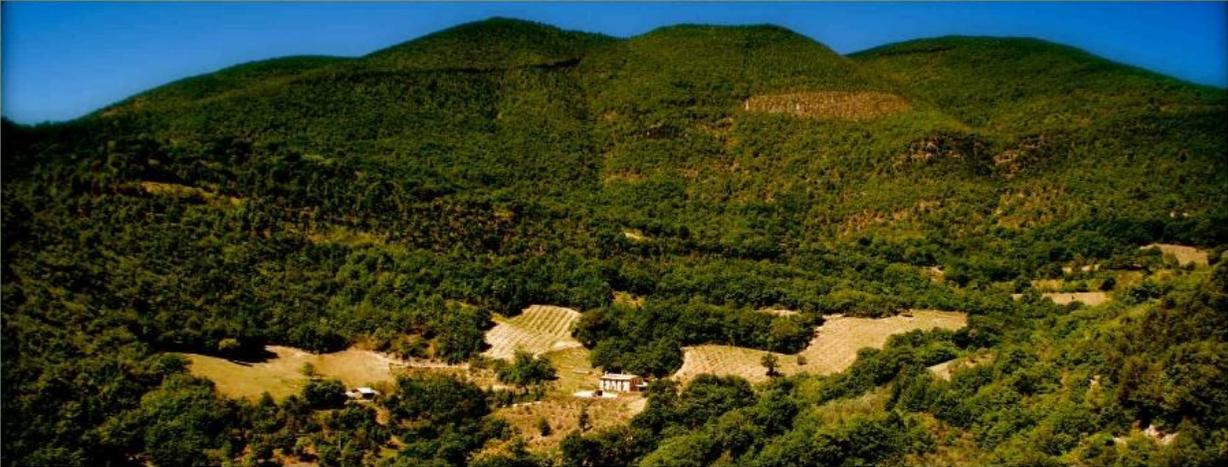
산채하우스 수확체험

산림복합경영 : 창조적 융합

- 3차 산림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웰니스 산업화
- 산림체험, 교육, 생태관광, 산림레포츠, 숲길 트레킹 등

LOCALITÀ IL PIANO
Agricoltura sostenibile nel cuore verde di Umbria

Language:  



[Home](#) [Agriturismo/Appartamenti](#) [Eventi e Attività per Gruppi](#) [Asparago Selvatico](#) [Come Trovarci](#) [WWOOFing](#)
[Newsletter](#) [Foto](#)

Circa la nostra azienda:

Località il Piano è un'azienda agricola situata nell'Appennino centrale, in Umbria, appena fuori Spoleto. L'azienda è gestita a livello familiare da Adolfo Rosati e Darcy Gordon. Sia la vecchia casa colonica che i terreni erano in totale abbandono quando acquistammo la proprietà nel 2001. Abbiamo ricostruito la casa, realizzando al piano superiore un Agriturismo/B&B, aperto nel 2008. Abbiamo piantato diversi ettari di frutta di antiche varietà, olivi, viti, abbiamo un cosiddetto "Forest Garden" gestito in Permacoltura, ortaggi, piante aromatiche medicinali e culinarie e fiori, con enfasi nella scelta di piante che non richiedano trattamenti chimici. Pur essendo certificati in regime

[Read reviews of Agriturismo Il Piano](#)




OUR OCHRE WAY

Kuska Wiñasun Homestead's pasture raised products, homesteading thoughts, and wild adventures.

[ABOUT OUR HOMESTEAD](#) / [SUPPORT KWH](#) / [PRODUCTS & SERVICES](#)
[SUBSCRIBE & CONTACT](#) / [HOMESTEAD TOURS](#) / [HERITAGE TURKEYS](#) / [PEKIN DUCK](#)
[DUCK EGGS](#) / [HERITAGE DUCKS & DUCKLINGS](#) / [POT BELLY PIGLETS](#) / [NON GMO FEED](#)
[FARM TO YOUR SCHOOL PROGRAM](#) / [KIDS WONDERING](#) / [BLOG](#)

Kids Wondering...

Kids Wondering... is a new resource to help children learn about the world around them.

Homeschoolers, unschoolers, and public and private schoolers are all welcome on this alternative education journey about learning, loving, and growing together.

Click here to discover new [resources for homestead learning](#) or simply check out the videos below!



Subscribe to receive email updates!

Subscribe

SEARCH

SEARCH

FEATURED VIDEO



RECENT POSTS

[Cayuga Ducks for Sale: Your Own Backyard Duck Eggs!](#)
March 19, 2016

[Black and Gray Duck Eggs: What EGGactly Do You Mean?](#) March 18, 2016



황도펜션 파로호 캠핑

홍보영상



[YTN] 한국의 신촌마을! 화천 파로. [MBC] 찾아라 맛있는 TV-강. [KBS2 TV] 저녁 생생장미 화. 파로호느름마을 영타 YTN 한국의 신촌마을에 소개된 파로호 느름마을은 '맛있는 TV'에서 김주진, 차예민 아나운서가 역방을 3월 저녁 방송된 KBS2 TV 저녁 생생장미의 '가

공지사항

2016년 산채 출하 4월 1일부터 각종산채(굴치, 나물취, 반풍, 부지갈이, 부외부추, 산마늘, 등)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생산.. 유촌리느름마을 정월대보름행사 오솔은 유촌리 느름마을 정월대보름행사가 열렸습니다. 알맞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뜻깊은 정월대보름

주변 관광명소



화천사 화천사 24년(973년)에 왕건이 조신 명종 즉위 후 유촌사가 흥건, 대서할. 조선시대에 원유(원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맑은 물에 사는 포유동물의 일종인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1982년 11월 4일)로.



파로호느름마을 영농조합법인 (주) 24138 화천도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로 923-15 대표전화: 033-442-5517 FAX: 033-442-5518



[주제 2 : 명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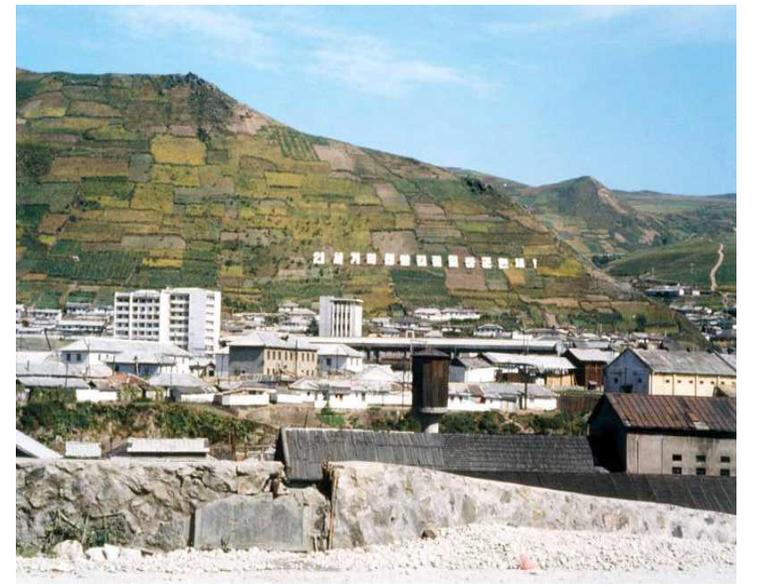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응 전략



함경북도 무산 무립목지 (겨레의숲, 2000)



함경북도 무산 다락밭 (겨레의숲, 2008)



양강도 혜산 다락밭 (겨레의숲, 2009)



함경남도 신포인근 산간나지 (평화의숲, 2000)



함경남도 요덕 철용산 (로저 쉐퍼드, 2013)



강원도 세포군 식개산 (로저 쉐퍼드, 2013)

북한 산림복구 지원 필요성

- **북한의 산림면적 감소 및 황폐화 추세가 심각**
 - 산림면적 감소 1990년 **68%** → 2010년 **47%**
 - 산림 황폐화 면적 1999년 **163만 ha** → 2008년 **284만 ha**
 - 산림 황폐 → 산사태 등 자연재해 증가 → 토양 및 농경지 유실 → 식량 부족 → 산지 개간 → 새로운 산림 황폐 : **악순환 반복**
- **북한 산림황폐는 통일 비용 부담의 가중 원인**
 - 공유 하천의 범람 초래, 산림병해충의 전이 등 월경성 재난을 야기
 - 방치할 경우 황폐 산림 확산에 따른 산림 복구비용 증가
- **북한의 심각성 인식과 한계, 남한의 관심과 협력 가능성**
 - 산림녹화에 총력, 자체 기술 및 자원 부족으로 자력복구에는 한계
 - 비정치적, 인도적일 수 있는 산림분야의 대북 지원에 관심 증가

이병석 의원 '포항 사방기술원에 한반도 사방협력센터' 설립 제안

2015-09-09 17:03 포항CBS 박정노 기자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은 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3대 남북통로의 하나로 제시한 '한반도 산림공동관리'의 세부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남북은 '산림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한반도 사막화'를 촉진하고 있는 북한의 산림훼손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북한 사방사업'을 통일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당이 나서, 통일부와 산림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북한산림 황폐화와 한반도 사막화'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역
영성/덕성(종교, NGO 등)

통일한국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선제적 산림녹화 착수해야

PN4N 매일민족중보 10월 28일(수) [경제 영역]

오성훈 | @pn4n.org

계간 <통일코리아> 2015 제4권 출간
역대 남북합의를 보면 통일의 길이 보인다



승인 2015.10.28 08:57:01



지난 8월 25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남북은 8.25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합의 이행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북한이 남북교류에 적극성을 띄고 있고, 한국 정부도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폭넓게 승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2017년까지 묘목 2배 증산 계획"

☞ ☞ ☞ ☞



‘삽질은 이렇게’...나무심기 지도하는 북한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식수절(3월 2일)을 맞아 2일 공군부대를 방문해 직접 나무심기 ‘모범’을 보였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부대 군인들과 직접 삽을 들고 구덩이 파기, 흙다지기 등 나무심기 ‘모범’을 보이며 산림조성 사업에서 군대가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김 제1위원장의 이날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오일정 한광상 당 부장, 리병철 당 제1부부장, 손철주 공군 정치위원이 수행했다. 2015.3.3 nkphoto@yna.co.kr



좌 : 산림복구를 위해 묘목생산을 독려한다는 기사 (2015.3.3.)

우: 북한 산림과학원 애국수목조직배양연구소

북 내각 산림총국, 국방위 산하로 재편

[단독] 대외창구 '조선녹색사업개발협회'도 활동중

김치관 기자 | ddkim@tongilnews.com

승인 2015.04.02 15:41:46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대대적인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책임진 내각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총국이 국방위원회 산하로 재편됐으며, '조선녹색사업개발협회'가 구성돼 대외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일 "최근 산림총국이 내각 산하에서 국방위원회 산하로 옮겨졌고, 국방위원회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산림녹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산림녹화 과정에서 인민군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은 통일부 관계자는 2일 오후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 지난달 <노동신문>이 보도한 벽성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달 7일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결정을 채택, 발표했으며,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에 따라 산림복구에 필요한 자재, 설비, 자금을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北, 산림녹화사업 주도 산림총국... "국방위 산하로 개편"

2015-04-02 22:05 CBS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 식수절을 맞아 나무심기를 하는 북한 주민들(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대대적인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내각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총국이 국방위원회 산하로 재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일 "최근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총국이 내각 산하에서 국방위원회 산하로 재편돼 국방위원회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산림녹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통일뉴스에 전했다.

이와함께 "산림녹화 과정에서 인민군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02 (토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리수용 북한 외무상 "산림 파괴와의 전쟁 선포"

인쇄 공유:



지난 2013년 4월 북한 구장군 용천리에서 적십자 직원들이 식목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北, 산림 파괴 막으려 대규모 나무 심기 나설 계획"

[뉴시스] 입력 2015.12.09 10:06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의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에 환경보전 노력에 북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9일 보도했다.

리 외무상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산림 파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 나라의 산을 나무가 뺏뺏하게 들어찬 황금산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10년여 동안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나무 심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산림파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의지를 보도한 언론 보도(2015.12.9.)

정부의 대북 지원 방식과 특성

● 정부의 대북 지원 방식

1. 정부의 직접 지원 : 식량, 비료, 긴급구호 지원 등
2. 국제기구 경유 : WFP, WHO, UNICEF 등의 북한지원 프로젝트 지원
3. 민간단체(NGO) 경유 : NGO에 남북협력기금을 매칭펀드로 지원

● 정부의 대북 지원 특성

- 국제기구 경유 등의 다자 지원보다 직접적인 양자 지원을 선호
- 남북 간 정치적 거래의 성격, 남북관계 변화에 크게 영향 받음
- 정부와 NGO와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 NGO 지원활동은 1995년 시작, 2000년 6.15 공동선언 계기 역동성회복

❖ (2014. 1월 현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참여 NGO : 59개
통일부 인도지원협력분야 등록단체 : 66개

대북 지원 활동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

● 긍정적 측면

- 중앙정부에 비해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덜 받음
- 자체 예산 확보 가능, NGO보다 의미 있는 규모로 대북지원 사업 가능
- 기업과 비교했을 때 공익적 사업 추진이 가능

● 부정적 측면

- 중앙정부에 비해 대북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고
- 사업 결정/집행 체계가 경직, NGO같은 대북 접근의 신속성/유연성 부족
-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좌우되며, 의회나 주민 여론에 민감할 수 있음

❖ 지자체가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1.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강원도, 경기도)
2. 지자체 행사의 성공적 추진과 이미지 제고
3. 호혜적 이익 추구(제주도, 경기도)

❖ 대북 지원 관련 대표적 지역 NGO

- 경남통일농업협력회
- 남북강원도협력협회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산림분야 대북 지원 사업 현황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북한 산림복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국가 주도사업으로 진행하되, 실질적인 사업 동반자로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
- 따라서 북한 산림복구 지원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는 정부, 민간단체, 기술자문단이 포함된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야 함
-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각 행위자별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 특히 대규모의 산림복구 지원사업의 경우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 등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임
- 민간단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단체로서 실무역량은 물론 예산과 사업체계를 강화해야 함
- 산림분야의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은 산림복구 지원 프로젝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사후 평가작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거버넌스 행위자별 역할 구분

구분	행위자	역할
정부	통일부	대북정책 전반 및 행정총괄,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주무부 북한 황폐산림복구기금 조성 산림복구 관련 협상력 강화
	산림청	북한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계획 수립 규모화 된 산림복구사업 진행 북한 산림관련 시스템 복구 지원 기술교육 및 시설지원 산림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조정
	지자체	지역 사회 산림교류협력사업의 주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지역상황에 맞는 산림관련 사업 발굴 및 진행 산림복구관련 지역 여론 환기 남북 지역 간 파트너십 형성
민간	겨레의 숲, 민간단체, 여론기관, 종교기관 등	북한 내 거점지역 확보 북한 정권 및 주민들과의 신뢰형성 사전 정보 수집 및 기반시설 마련 북한 산림복구지원을 위한 국내외 여론 환기
기술 자문단	산림과학원 학계전문가	사업아이템 발굴 및 사전지식 제공 북한 산림복구 관련 기술자문 및 타당성 조사 기술적 문제 해결 북한 산림연구 및 기술향상 등 능력배양 지원 산림복구 시험단지 조성 산림복구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단계별 민간협의회 구성방안>

● 1단계 : 협의회 구성 및 안정화 단계

- + 정부(통일부, 산림청)
- + 준비된 민간단체 및 협의회(겨레의 숲)
- + 준비된 지자체
- + 관련 전문가

● 2단계 : 지원사업 및 협의회 확대 단계

- + 정부(통일부, 산림청)
- + 민간단체 및 협의회(겨레의 숲)
- + 지자체
- + 관련 전문가
- + 기업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응 방안

-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우선 정비
 - 현재 지자체는 독자적으로는 대북지원 협력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그동안 대북 협력사업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경기도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나 강원도의 '남북강원도협력협회'와 같은 별도의 사업추진 협력 민간단체를 설립하기도 함
 -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 정비, 남북협력기금 조성 등의 예산 확보,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꾀할 수 있음
 - 경북도는 지자체로서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점검, 정비하고 기회에 대비할 필요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자체	조례제정	기금 조성	전담 부서	지자체	조례제정	기금 조성	전담 부서
강원도	1998.9	110억원	O	울산시	2006.4	-	X
경기도	2001.11	227억원	O	제주도	2007.5	8억원	X
광주시	2003.1	10억원	X	부산시	2007.7	20억원	X
전남도	2003.6	11억원	X	전북도	2007.12	11억원	X
서울시	2004.7	200억원	X	경북도	2008.1	-	X
인천시	2004.11	85억원	O	충북도	2008.2	3억원	X
경남도	2005.4	30억원	X	대전시	2008.6	-	X
대구시	2005.8	-	X	충남도	2011.11	5억원	X

자료: 박경석 외(2013) 민간부문·지자체의 북한 산림복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응 방안

● 북한 산림복구 지원의 단계적 절차 중시

- 북한 산림복구 지원사업의 경우 제한된 정보나 신뢰성의 부족 등 여러 장애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성급한 추진은 금물이며, 특히 초기 상황인 경북도의 경우 '산림복구 지원의 기본방향'의 첫 단계인 대북 산림협력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우선 충실할 필요가 있음

● 산림복구 지원 행위자 간 소통과 협력이 튼실한 거버넌스의 구축

- 지자체는 직접적인 사업의 주체로서, 자체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규모있는 사업과 지역상황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진행하면서 산림 교류 협력 사업의 폭을 확대해가야 하므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들과의 신뢰와 협력이 동반될 수 있도록 충실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경북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거점의 확보와 기술자문단의 구성

- 기술자문단은 사업 아이템의 발굴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 능력 향상 지원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특성을 규정짓는 구성요소로 인식
- 사업 거점의 물색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

감사합니다

